

전 세계 '초고압·직류·해저' 연결... 구조적 성장 구간 진입

글로벌 틈터 K-산업

전선업계

송전망·해상풍력 등 수주 증가
주요기업 실적개선 흐름 뚜렷
생산설비·고부가제품 투자 확대



LS전선 직원이 구미 공장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테스트하고 있다. /LS전선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케이블 포설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전선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전선업계가 초고압(HV)·HVDC(직류)·해저 케이블 중심의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 2022~2024년 확보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지난해 실적적으로 반영되며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된 가운데 양사는 HVDC·해저 설비 증설과 인증 확보, 턴키 역량 강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 수혜

미국과 유럽의 전력망 투자 확대가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국내 전선업계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인프라투자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송전망 확충과 전력 인프라 현대화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유럽 역시 해상풍력 확대와 국경 간 전력 연계 강화로 HVDC 수요가 늘고 있다. 수급 타이밍은 가격에서도 확인된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케이블 가격은 거의 두 배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LS전선·대한전선의 2025년 실적으로 이어졌다. LS전선은 연결 기준 매출 7조5430억원(전년 대비 +11.5%), 영업이익 2795억원(+1.8%)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6조2171억원, 2024년 6조7653억원보다 매출이 크게 확대됐다.

통상 수주 후 1~3년의 시차를 거쳐 매출로 인식되는 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지난 2022~2024년 확보한 초고압·HVDC 프로젝트가 2025년 실적으로 반영됐다. 해석이 나온다. LS전선은 지난 2023년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230kV급 초고압 지중 케이블(1130억원 규모)을

수주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유럽 송전망 운영사 테네트와 2조원대 해저 HVDC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대한전선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5년 잠정 매출은 3조6360억원(+10.5%), 영업이익은 1286억원(+11.7%)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조8440억원, 2024년 3조2913억원에 이어 매출이 급성장중이다. 지난해 연말 수주잔고는 3조663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21~2022년 미국·카타르·캐나다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2023년 해저케이블 포설선 인수로 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체계(EPC) 수행 체계를 갖춘 점도 실적 기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원가연동 구조를 갖춘 전선업계는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가격 상승이 판가에 반영되면서 매출 확대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도 했다는 평가다.

◆ 공장 증설·통합 솔루션 마련 등 미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전력망 투자와 해상풍력 확대에 힘입어 HVDC·해저케이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글로벌 HVDC 케이블 시장이 지난해 133억달러에서 오는 2035년 613억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1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이 지난 2024

년 112억달러에서 오는 2032년 18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LS전선은 생산능력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동해 제5공장을 통해 HVDC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렸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CES 2026에서는 한국전력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술은 실시간으로 케이블 이상 위치를 99% 이상 정확도로 탐지하며, 이를 자산관리 플랫폼에 통합해 운영·진단까지 아우르는 솔루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현재 지중 초고압 케이블 부문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당진 전선 부문 가동률은 93%로 사실상 풀가동에 가까운 반면, 지난 2024년 준공한 당진 해저 1공장은 가동률이 약 50% 수준으로 아직 확대 단계에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저·HVDC로 축을 넓히고 있다. 525kV HVDC 전압형 케이블 국제 인증을 확보한 데 이어 525kV HVDC 해저 케이블 시제품을 공개하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적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회사는 640kV급 생산이 가능한 해저 2공장을 오는 2027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SK온, 2.5만t 리튬 확보... ESS 사업 박차

포스코그룹 장기구매 계약 체결 양사 폐배터리 재활용 등 협력 논의

SK온이 포스코그룹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배터리 원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에 대응해 중장기 원소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포스코그룹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법인 포스코아르헨티나로부터 최대 2만5000톤의 리튬을 공급받는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실장(왼쪽)과 이재영 포스코홀딩스 에너지소재사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리튬 장기 구매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이는 전기차 약 4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SK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원

소재 시장의 수급 변동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리튬 가공 시장이 특정 국가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인 만큼 공급망 안정성은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포스코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달 구조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계약식에서 양사는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산 리튬을 SK온 ESS 제품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ESS 시장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자회사 포스코HY클린메탈을 활용한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원관희 기자 wkh@

LIG넥스원, AI 기반 군집무인기 공개

DSK 2026 참가... 무인기 솔루션 선포

LIG넥스원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DSK 2026'에 참가해 자폭·정찰·수송을 아우르는 무인기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LIG넥스원은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무인기를 처음 공개하며 미래 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한다.

AI 기반 군집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 중인 캐니스터 발사(사연장 발사형) 방식의 자폭형 소형 무인기로, 군집 운용이 가능하다. LIG넥스원은 해당 사업에서 체계종합과 AI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형 무인기 공통 플랫폼(MCUP) ▲탑재중량 40kg급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MPD) ▲미래 도심항공교통(U



LIG넥스원 'DSK 2026' 부스 전경. /LIG넥스원

AM)에 활용될 첨단 비행체(AAV)에 특화된 '통합항공전자시스템' 등을 전시한다.

항공 EO/IR(전자광학·적외선)과 지상 차세대 전자용 EOTS(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 전자광학 시스템도 선보인다.

LIG넥스원은 감시정찰, 타격, 수송에 이르는 기술력을 소개하고 유무인복합 체계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군 구원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KAI, 사장 선임안 미상정 기아 조지아 공장, 누적생산 500만대 달성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신임 사장 선임이 노동조합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 안건에는 신임 사장 선임 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KAI는 김종철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 선임 논의 보류에는 노조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부장이 사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조는 이사회가 열린 서울로 상경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은 기자

美 시장 공략 핵심기지 역할

기아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격전지인 미국에서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기아 조지아 법인은 24일(현지시간) 누적 생산 500만대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지아공장은 2009년 중국,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구축된 기아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기지 역할을 담당해왔다.

연간 34만여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가운데 북미 전용 SUV 텔루라이드를

비롯해 쏘렌토, K5, 쉐타페 등을 생산했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북미 소비자 요구와 미국의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략 모델로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꼽힌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은 "기아 조지아는 텔루라이드를 생산하는 전세계 유일의 공장으로서, 이번 생산 개시는 단순한 신차 출고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며 "500만대 생산 달성과 조지아주 최초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통해 기아의 기술적 진전과 미래 전략 방향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영문약어 'KAL' 사용 중지

서비스 명칭 'Korean Air' 중심 안내

대한항공이 60년 넘게 사용해 온 영문약어 'KAL'을 회사 공식 문서인 정관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제1조(상호)와 제2조(목적)를 수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정관에 명시됐던 '영문 약호 KAL' 표기를 삭제

하고, 'KAL 리무진버스사업' 및 'KAL 문화사업' 등 부대 사업 명칭에서도 'KAL'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서비스 명칭을 'Korean Air'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내부 시스템에서는 KE를 사용한다. KE는 'KE 901'처럼 항공편명 앞에 붙는 국제 표준 식별 코드로, 글로벌 예약·발권 시스템과 항공권, 탑승권, 공항 전광판 등에 사용된다. /양성운 기자